

창업 어디서 어떻게?... '창업넷' 원클릭 하세요

취업난 속에 퇴직자가 늘고, 정부가 창업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막상 뭐가 해보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 온라인상의 유용한 창업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정보를 '창업넷'(www.startup.go.kr)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창업 준비자들에게 유용한 창업 정보사이트를 알아본다.

우선,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넷이다. 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지정된 만큼 이름이 나온다. '창업 정보'란을 통해 관련 창업업 할 역할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다양한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신청 코너도 있다. 각 정보 게시물은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인터넷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더 상담할 수 있다.

신제품·신기술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꾼다면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이 안전맞춤이다. 막연한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에 유용한 정보사이트 뭐가 있나

신제품·신기술 아이디어 창업 창조경제타운 '노크'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가면 상담·자금 지원 가능

여성 창업자, 광주여성발전센터 일하기센터 도움

창업정보
 생생한 정보, 손쉬운 출판!
 기술창업에 위한 정보와 소식

창업지원
 새로운 출발, 할만도전!
 창업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온라인법인설립
 비용절감, 시간절약!
 간단한 법인설립

를 검증해 구체화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곳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 형식으로 올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라인 멘토'가 붙어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조언해준다.

품 제작과 특허 등록, 법인 설립과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준다. 활영된 창조경제타운 단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고 멘토링 과정까지 있어 유용하다"며 "사이트 개설 후 지난 2년간 아이디어

어 4670여건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자체 소속 창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찾는 방법이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광주호남지역본부 산하에 각각 3곳 씩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광주에는 남부(062-366-2122)·서부(062-954-2084)·북부(062-525-2724)지원센터가 있고 전남에는 권역별로 목포(061-285-6347)·여수(061-665-3600)·순천(061-741-4153)지원센터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에게 정책자금도 지원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창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각종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 광주시여성발전센터(womangwangju.go.kr)의 여성일하기센터와 광주YWCA·광주YMCA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업 관련 소비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는것은 필수다. 특히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지역업 창업 희망자는 공정거래위의 가맹 사업 거래 정보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꼭 둘러봐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창업전략

국내에 웰빙바람이 분 이후에 새롭게 재조명된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특산품 상품화에 대한 경쟁적 노력이 더해져 전통식품 제조업의 흥수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전통식품 제조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차별화에 요소가 없는 일반적인 제품들이 난립하다보니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확보한 제조업체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점포형 창업은 고객이 찾아오는 형태의 사업인지라 자신의 노력보다는 창업아이템과 점포의 위치가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로 떠오른다.

하지만 제조업 특히 전통식품 제조업 창업의 경우에는 고객을 발굴하여 납품을 해야 하는 형태의 사업인지라 지속경영은 점포창업에 비해 훨씬 어려운 창업형태다.

전통식품 제조업 창업시 주요 창업전략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자신이 창업할 해당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의 개발이다. 이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동력이다.

두 번째는 타 유사제품들의 다양하고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을 꼽을 수 있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형태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경쟁제품들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차별화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HACCP 인증 공장의 설립이다. 어차피 제조업은 납품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식품시장의 트렌드상 납품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HACCP 인증을 받고 생산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네 번째는 매력적인 브랜드네이밍과 B.I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많은 전통식품의 브랜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브랜드파워는 유명해진 다음에 생기는 2차 브랜드 파워도 있지만 브랜드를 만들자마자 처음 봐도 흡입력이 느껴지는 1차 브랜드 파워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다섯 번째는 상표등록에 대한 필수지식이다. 상표에 대한 기초상식이 갖춰지지 않은 대개의 제조업체들은 상표출원시 식품가공류에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포장류에 대한 출원도 필수이며 향후 전개될지도 모를 프랜차이즈 관련 서비스표의 등록도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섯 번째는 포장디자인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며 시선을 끄는 느낌있는 포장디자인은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곱 번째는 판로의 개척부이다.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만들어진 제품을 얼마만큼 팔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적극적인 영업능력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거나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직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대표 자신이 다양한 채널들을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특히 전통식품 창업시 홍보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품이 잘 만들고도 판매가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데 매진해야 한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농담 토크 지난 8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창농·귀농박람회 강연프로그램에서 관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산업 청년 창업자 300명에 매월 80만원씩 지원

농식품부, 내년부터 '안정자금'

내년부터 농산업분야 청년 창업자 300명에게 매월 80만원씩 '창업안정자금(최대 2년)'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총 141억원을 신규로 편성,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우수한 젊은 인력의 농산업분야 창

업 촉진을 위해 '청년농산업창업지원(26억원)'을 추진한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매월 80만원씩(최대 2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초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300여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귀농인과 창업 농 등 신규 취농인을 위해 소규모 맞춤형

농지를 지원(90억원)할 방침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농지를 1000㎡ 단위로 임대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기초 평가 ▲창업보육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판로지원 등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모태펀드와 정책자금, 농지 행사업업을 패키지로화해 농지·시설임대

가능하도록 '농식품투자플랫폼(이자보전 1억4000만원, 250억원 용자)'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권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주무관은 "청년들이 귀농 초기에는 수입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수립할 것"이라며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경우 현재 전화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수요를 반영한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 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약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 동구 계림동 (토 90평, 건 202평)
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층 (소매점) 2층~4층 (룸15개)
☆ 홈플러스 남서측 위치 (남향)
- 서구 포암동 (토 106평, 건 178평)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 1층 (룸 7개) 2층 (룸7개) 3층 (룸5개)
☆ 윤리 중학교 부근 8m포장 도로 접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엔)
주말반 (오전~오후엔)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 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 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 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서구 상현동 (속박시설) (토 90, 건 336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5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 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옆) 4층건물 (대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및 (월수익 1,000만 - 보 2억, 용 6억) → 매가 20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 건 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 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남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시청2분) (보 2천, 월 200만) → 매가 3억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 1천, 월 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 5백, 월 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 4천, 보 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1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 2천, 보 3백, 월 32만) → 매가 4천5백만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 2호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기)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 4천5백, 월 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호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억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및집지역, 아파트단지 (보 2백, 월 25만) → 매가 3천8백만
- 서구 광촌동 대문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 2천, 보 3백, 월 32만) → 매가 3천6백만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